아시아전자문화지도의 첫걸음, 조선족문화지도

Chinese-Korean Cultural Map, the First Step to Asian Electronic Cultural Map

김동훈, 문현주*
한국외국어대학교

Kim Dong-Hun, Moon Hyun-Joo*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요약

조선족문화지도는 아시아전자문화지도 구현을 위한 첫 단계로 기획된 프로토타입 전자문화지도이다. 조선족은 조선어와 한어를 함께 사용하며 한민족 고유의 유·무형 전통문화와 중국의 문화를 융합된 형태로 지닌 소수민족 특유의 문화특징을 보여주며, 이러한 소수민족적 특징은 다민족적이고 다문화적인 아시아 문화를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족 문화지도 설계를 위해 관련 자료의 수집·분류, 키워드추출, 유사항목 분류, 문화지도요소 추출, 전자문화지도 기술요소 추출 및 프로토타입 설계, 전자문화지도의 구현 등 아시아전자문화지도 전체에 적용될 설계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Chinease-Korean Cultural Map, which is an electronic cultural map that shows Chinese-Korean culture on maps, is planned as the first step to development Asian Electronic Cultural Map. Chinese-Korean have their unique cultural characteristics same as other small tribes. Small tribes shows same typical cultural characteristics of Asian, and that characteristics are very important factors for understanding the whole Asian culture. This paper proposes a logical and standardized development methodology for construction of Electronic Cultural Map. The methodology consists of 6 steps; information analysis, keyword extraction, keyword clustering, map element extraction, prototype design, and map development. We used and evaluated the methodology during prototype design and development steps for the optimal functions. To generate the base maps for Chinese-Korean Cultural Map, we use Google Earth and KML(Keyhole Markup Language) for standardized and easy development.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의의

지도는 상대적인 위치정보와 거리정보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효과적인 표현매체이다. 지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근래에 이르러 지도를 이용해 지리 정보와 위치정보뿐 아니라 문화적, 역사적, 산업적, 교육적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시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아시아는 많은 민족들로 이루어져있고, 그 민족들간의 교류와 이주,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된 문화적인 충돌과 영향, 융합과 조화를 통해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아시아의 문화는 다민족적인 성격을 띠고 있을 뿐 아니라 다문화적 성격이 강하다. 소수민족의 문화는 이러한 문화간의 충돌과 교류, 융합과 정착과정을 더욱 잘 보여주고 있어, 소수민족문화에 대한 연구는 아시아문화를 깊게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조선족(朝鮮族)은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소수민족을 일컫는다. 중국내 소수민족은 중국의 총 56개 민족 가운데 한족(漢族)을 제외한 나머지 55개 민족으로 중국 총인구의 약 8% 가량인 약 2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조선족은 98% 이상이 동북 3성에 거주하며 약 1%정도가 내몽고 자치구 지역 등의 약 43개 향(鄕)·진(鎭)에 분포되어있다. 조선족 문화는 다른 소수민족의 특징과 마찬가지로 다민족적이고 다문화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조선족은 이주 이전에 지니고 있던 한민족 고유의 유·무형 전통문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착지인 중국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고, 또한 접경한 북한에서 파생된 문화요소도 눈에 띤다.

우리의 연구목적은 아시아전자문화지도를 기획하고 설계하고 구현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시아전자문화지도의 첫걸음으로서 조선족문화지도를 기획하고 설계한다. 특히 아시

아전자문화지도의 프레임 설계를 위해 문화자료의 수집·분류, 문화지도요소의 추출, 전자문화지도의 설계·구현에 있어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설계방법론을 연구하고 실험한다.

1.2 논문의 범위 및 연구 수행 방안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지역적으로 조선족의 주요 거주지역인 동북 3성과 내몽고자치주지역으로 제한한다. 시간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주요 이주 시기였던 17세기 초엽에서 20세기 중반까지, 특히 문헌자료 및 관련자료가 집중되어있는 19세기 후반에서 현재까지를 주요 연구범위로 정한다. 연구주제는 조선족 관련문헌에서 추출한 키워드를 기반으로 항목을 분류한 후, 이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항목들을 사용한다.

조선족문화지도를 위한 연구의 수행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관련 정보의 수집하고 정의된 분류방법에 따라 분류작업을 수행한 다음 키워드 추출작업을 수행한다. 그런 다음 키워드의 유사항목 분류작업을 수행하여 연구범위로서의 주제를 선별한다. 선별된 주제는 문화지도의 공간과 시간 요소를 추출한 다음 전자문화지도의 구성요소를 설계한다. 프로토타입의 설계와 구현작업을 통해 아시아전자문화지도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전자문화지도의 구현기술 및 기법들을 실험하며, 이를 통해 체계화·통일화된 설계 및 구현 방법론을 제시한다.

2. 조선족 문화 정보의 수집 및 분류

수집된 자료의 분류는 크게 유형정보, 도서정보, 지리정보, 시간정보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1) 유형정보-지도류/사전류/논문/단행본/웹사이트
2) 도서정보-저자/출판사/발간년도
3) 지리정보-권역/국가/지역/도시
4) 시간정보-사건발생시기/기록 시기

2.1 유형 정보의 분류

조선족 관련 자료로 수집된 자료는 지도류가 5개, 도서와 단행본이 35개, 논문은 368개, 인터넷사이트는 15개이다.

지도류는 중국전체전도와 동북3성 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수집된 도서는 저자와 출판사, 발간년도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현재까지 수집된 도서의 경우 모두 1990년 이후에 발간되었고, 대부분 국내에서 출간되었지만 일부는 연변대학출판사 등 현지 출판사에서 출간된 것으로 총 35권의 도서를 수집하였다. 논문은 368개의 논문을 논문제목과 저자, 논문지명, 출판년도별로 분류하였다. 조선족 관련 논문은 조선족 문화에 대한 예·체능, 공학, 교육, 사회, 신학, 어문, 의학, 자연과학, 법학·행정, 인문 등 10개 분야별로 분류하였다. 인터넷 사이트는 사이트의 공식명칭, 사이트 주소, 사이트에서 제고하는 자료유형(텍스트, 사진, 동영상 등)을 기준으로 총 15개의 기관, 언론사, 정보사이트를 조사하고 분류하였다.

2.2 지리 정보의 분류

지리정보의 분류는 중국의 행정구역과 조선족주요거주지역의 두 종류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지리정보는 전자문화지도에서 좌표정보의 추출 및 이동경로, 영역의 경계 등을 설정하거나 표시하는데 사용되어진다.

1) 중국 행정구역 분류

중국은 23개의 성, 5개의 자치구, 4개의 직할시, 2개의 특별행정구로 이루어져 있다. 중국은 흑룡강성(黑龍江省), 길림성(吉林省), 요녕성(遼寧省), 하남성(河南省), 하북성(河北省), 산서성(山西省) 등 22개 성과 대만(臺灣)도 별도의 성으로 분류하고 있다. 23개의 성은 심양(沈陽), 광주(廣州), 무한(武漢), 성도(成都), 복주(福州), 서안(西安) 등 각기 성도를 가진다. 중국은 또한 티벳자치구(西藏自治區), 신강위구르자치구(新疆維吾爾族自治區), 내몽고자치구(內蒙古自治區), 영하회족자치구(寧夏回族自治區), 광서장족자치구(廣西壯族自治區)등 5개의 자치구가 있으며, 북경시(北京市), 상해시(上海市), 천진시(天津市), 중경시(重慶市)의 4개의 직할시가 있다. 특별행정구(特別行政區)으로는 홍콩(香港)과 마카오(澳門)가 있다.

2) 조선족 거주지역 분류

조선족은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의 동북 3성에 주로 거주하고 있다. 59%에 해당하는 약 118만 명이 길림성에 거주하고, 22.5%에 해당하는 약 45만 명이 흑룡강성에, 17.5%에 해당하는 약 35만 명이 요녕성에 거주하고 있다. 그 이외에는 1%에 해당하는 약 2만 명의 조선족이 내몽고나 북경 등의 기타 지역에 거주한다.

[표 1] 조선족의 주요 분포지역

성	주	현/시	향/진	촌
길림성	연변자치주	연길시	흥안향	흥안
		도문시	량수진	정암촌
		둔화시	관지진	대전자촌
		용정시	덕신향	정재촌
				혜란촌
		훈춘시	경신진	
		허룽시	투도향	
		안도현	장흥향	새마을
			상도향	남도촌
		왕청현	천교령	

길림성		장백 조선족자치현	장백진	해방촌
				민주촌
				록강촌
			십사도구진	십사도구촌
			팔도구진	하마천촌
				구도구촌
			마록구진	미륵구촌
				십팔도구촌
			신방자진	수고촌
			보천산진	대외자촌
			용강향	
			김화향	십육도구촌
			십삼도구향	
			십이도구향	
			십일도구향	
		교하시	오림조선족향	태평촌
		길림시	토성자만족조선향	유방촌
		유수시	연화조선족향	연화촌
		매하구시	화원조선족향	
			소양만족조선족향	대양촌
		휘남현	루가조선족향	
		유하현	강가점 조선족향	오성촌
			삼원포조선족진	삼원포촌
				신세촌
		통화시	금두조선족향	금두촌
				광신촌
			대천원조선족만족향	신민촌
				신농촌
		집안시	량수조선족향	해관촌
				양무림촌
흑룡강성		해림시	해남조선족향	남라고촌
			신안조선족향	
		영안시	와룡조선족향	
			강남조선족만족향	강남촌
			성동조선족만족향	
		밀산시	흥개조선족향	
			화평조선족향	행복촌
		동녕현	삼차구조선족진	삼차구촌
		탕원현	탕원조선족향	
		화천현	성화조선족향	
		의란현	영란조선족향	집승촌
				영란촌
		나북현	동명조선족향	이명촌
		오상시	민락조선족향	
		계동현	명덕조선족향	용건촌
			계임조선족향	영성촌
		상지현	하동조선족향	
		북안시	주성조선족향	
		철력현	영풍조선족향	
		수화시	흥화조선족향	
요녕성		무순시	순성구 전전조선족진	
			순성구 리석채조선족진	
		신빈만족자치현	남팔가자조선족향	
		개원시	팔보만족사버족조선족진	신풍촌
		환인만족자치현	아하조선족향	남노대촌
			괴마자조선족진	
		심양시	우흥구 대광조선족향	오가황촌
			동릉구 혼하참조선족향	김가만촌
			신성지구 석불사조선족향	
		안산시	송삼대자조선족만족진	송삼대자촌
		관전 만족 자치현	하로하조선족향	로하구

조선족 거주 지역은 대부분 집거촌형태로 6번에 걸친 대규모 이주로 형성되었다. 그 가운데 출신지역에 따른 집거촌의 대표적인 조선족 마을은 표2와 같다.

[표 2] 대표적인 조선족 집거촌

조선족 마을		형성시기
안도현 장흥향 새마을	경상도마을	1938년
안도현 삼도향 남도촌	전라도 마을	1939년
도문시 량수진 정암촌	충청도마을	1938년
용정시 장재촌	함경도마을	19세기 말
용정시 혜란촌	함경도마을	19세기 말
내몽고 삼합촌	경상도 및 기타	

2.3 시간 정보의 분류

1) 자료유형별 시기분류

자료 유형별 시간 분류는 도서의 경우 1620년대부터 현재까지, 논문의 경우는 1677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1901년부터의 행정문서, 법규, 조직기구, 독립운동지역, 무역정보, 역사, 상업 정보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2) 이주 시기별 시기분류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대규모의 6회 이주시기에 따라 시기를 분류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이주시기별 분류

이주 단계		년도	특징
제1시기	강제이민	1620-1677	1619년 강홍립부대 파병포로, 1627년 정묘호란, 1636년 병자호란
제2시기	범월잠입	1677-1881	청조의 봉금령, 조선왕조의 쇄국령을 어기고 잠입
제3시기	이민초간	1882-1910	청조의 봉금정책 폐지,이민실변 정책으로 이주민 증가
제4시기	망명이민	1911-1920	1905년 일본에 의한 조선의 외교권 박탈, 1910년 한일강제합방 으로 망명이민증가
제5시기	이민제한	1921-1931	일본의 청조와 강제조약, 청조의 조선족박해와 귀화강요
제6시기	강제이민	1931-1945	만주국설립, 대륙침략 병참기지활용으로 강제이주

3. 조선족 문화지도 설계

조선족 문화지도의 설계에 있어 앞에서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상향식 방법에 따라 수집된 자료에서 키워드를 추출하고, 추출된 키워드를 유사한 항목끼리 분류하였다. 그 다음, 문화지도 요소를 추출하고 구현요소와 맵핑하는 단계까지의 조선족문화지도 설계절차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 키워드의 추출

수집된 참고문헌에서 관련 키워드를 추출한다. 아래의 표4은 추출된 키워드의 예를 보여준다.

[표 4] 추출된 키워드 예

중국동북지방, 집거촌, 중국의 개혁개방, 흑룡강 신문, 중국정부, 한.중 수교, 민족경제공동체, 조선족상공인회,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민족자치구역제도, 내몽고자치구, 사회주의, 소수민족집거지, 봉금정책, 불법이주자, 일제 토지박탈과 농민착취정책, 독립운동, 민족정책, 중국내 소수민족문제에 대한 결의안, 중국만주성위원회, 흑룡강성 송강지역, 조선족 토지소유권획득, 항일투쟁, 인민해방군, 길림성위원회

3.2 키워드의 유사항목 분류작업

추출된 키워드는 모두 통합한 후 유사한 항목끼리 클러스터링되어진다. 현재까지 추출된 유사항목은 조선족 인물, 행정기관, 전쟁/혁명, 간행물, 직업/직종, 전통놀이, 세시풍속, 전통음식, 복식, 호칭/지칭체계, 토속 신앙, 생활도구, 사회문제, 주거형태, 이주역사 등 약 50여 종류로 분류되었다.

3.3 주제양태표의 생성

클래스로 분류된 키워드들은 문화 분류 체계에 의해 조선족 주제양태표에 따라 분류되어진다. 참고문헌이 점차 추가되어 자료들이 튼튼한 골격을 지니게 되면 더욱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주제양태표의 생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클래스의 계층구조는 주제양태표의 구성과 함께 전자문화지도의 메뉴구조 및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계에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다.

3.4 문화지도 구현요소의 추출

전자문화지도 구현을 위해 각 클래스 내 키워드와 참고문헌의 내용을 참조하며 문화지도요소를 추출한다. 추출될 문화지도 요소는 클래스의 주제로 지도위에서 표현될 공간정보와 시간정보를 담고 있다. 이때 공간정보는 지도상에 표현될 점, 선, 면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그리고 시간정보는 관련 주제 또는 관련 이벤트의 발생 시점과 범위 등을 기준으로 적절한 주제를 선택 배치한다.

1) 공간 정보의 추출

공간요소의 추출은 점,선,면이 그 주요 요소로서, 점은 조선족마을위치, 학교위치, 행정구역소재지, 거주민분포, 인물출생지, 사건발생지, 시장/박물관 위치 등을 표시한다. 선은 이주경로, 이동경로, 관광경로, 영토 및 행정구역 경계, 활동 영역 경계, 도로망, 하천, 해안선 등을 나타낸다. 면은 영토, 행정구역, 인물 활동구역, 지역구분, 권역별 구분 등에 사용된다.

2) 시간 정보의 추출

시간요소의 추출은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시점과 시간범위로 나누어진다. 시점은 이주시기, 사건발생일, 국경일, 축제일 등을 나타낸다. 시간범위는 이주기간, 거주기간, 활동기간, 법률의 존속기간, 시대구분 등에 사용된다.

3.5 문화지도의 구현

문화지도 구현요소를 추출한 다음 조선족문화지도의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였다. 구현을 위한 베이스맵은 구글어쓰(Google Earth)를 사용하였고, 점/선/면 등의 공간정보는 KML (Keyhole Markup Language)를 사용하였다.

```
<?xml version="1.0" encoding="UTF-8"?>
<kml xmlns="http://earth.google.com/kml/2.2">
<Document>
        <name>강남조선족만족향.kml</name>
        <Style id="style1">
                <IconStyle>
                        <Icon>
<href>http://maps.google.com/mapfiles/ms/micons/blue.png</href>
                        </Icon>
                </IconStyle>
        </Style>
        <Placemark>
                <name>강남조선족만족향</name>
                <styleUrl>#style1</styleUrl>
                <Point>

<coordinates>129.477997,44.335636,0</coordinates>
                </Point>
        </Placemark>
</Document>
</kml>
```

▶▶ 그림 1. 생성된 KML 파일의 예

KML은 구글어쓰와 구글맵(Google Map)뿐만 아니라 GIS/GPS등의 표준언어로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다.

▶▶ 그림 2. 동북3성 및 조선족 주요거주지역

4. 결 론

조선족문화지도는 아시아전자문화지도의 첫 시범사업으로서, 아시아 문화이해를 위한 소수민족 문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아시아전자문화지도 구현을 위한 분류체계 수립 방법론 및 설계 방법론을 제시하고 실험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로서 조선족문화지도를 다루고 있다. 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전통문화 관련 콘텐츠 개발을 돕는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Google Earth, http://earth.google..com
[2] 당안정보네트워크, http://www.ybda.gov.cn
[3] 강위원, 조선족의 오늘, 도서출판신유, 2002.
[4] 국립민속박물관, 중국 길림성 한인 동포의 생활 문화, 학술총서 19, 국립민속박물관, 1996.
[5] 박경휘, 중국조선족의 의식주 생활풍습, 집문당, 1994년.
[6] 박창욱, 조선족의 중국이주사 연구, 역사비평 겨울호(통권 17호), 역사비평사, pp. 179~197, 1991.
[7] 심혜숙, 조선족의 연변 이주와 그 분포특성에 관한 소고, 문화역사지리 제4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pp. 321~331, 1992.
[8] 임계순, 우리에게 다가온 조선족은 누구인가, 현암사, 2003.
[9] 강용찬, 중국 조선족 동포의 삶과 민족경제, 학고방, 2003